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총회세례교인헌금 시행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인사

발전하는 총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 지난하고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광야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도 세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여 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세움의 깃발은 더 힘차게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105회 세움 총회는 한국교회 교단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총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방영된 총회 역사 다큐는 온라인 총회로 인하여 자칫 부족할 수 있었던 총회원들의 마음의 여백을 감동으로 채우며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었습니다. ‘합동 개혁신 교단합동 15주년 기념 예배’는 우리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향하여 진정한 연합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고, 총회교육개발원에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하나 바이블> 성경공부 교재를 출간하는 뜻 깊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기행 총회장님 때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총회교역자최저생활기금 20억과 전국장로연합회가 기부한 1억5천만원, 장로신문사가 기부한 1천만 원 등 총 21억 6천만 원을 전국의 2,160곳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100만원씩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05회 총회는 소모적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책을,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세움 총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2021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총회가 견고하게 서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총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총회에 보내주시는 <세례교인헌금>은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세워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총회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소중한 예물은 교단과 산하 모든 기관들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위를 이기는 파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가 바위가 되면 파도는 언젠가 잠잠해 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총회를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총회를 이룹시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총회원님들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무 인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 산하 전국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05회 총회에서 제14대 총무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는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해 총회는 교단 대외사업, 총회 산하 신학대학 및 총회 인준 신학교 재정 후원, 선교사 후원,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 대응사업, 미자립교회 후원사업, 교회 세움 지원사업, 다음세대 세우기 사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水積成川(수적성천)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이 모이면 시내를 이룬다는 뜻으로, 물방울도 쌓이면 내를 이룰 수 있듯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총회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이 총회 사업의 원동력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피 땀 어린 헌금이 절대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고후 9:13)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총회 정책개발과 총회 세움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총무 **고영기 목사**



사무총장 인사

행함이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20-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선교사들과 작은교회 및 기타 기관들일 것입니다. 총회본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105회기 예산이 10%가 삭감된 상황이지만 지출되어야 할 곳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께 호소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총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회는 세례교인 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학교, 다음세대교육, 미자립교회, 선교, 복지, 노회, 상비부사업, 각 기관 등 지원 사업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세례교인 헌금에 의해 많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개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을 두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총회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복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021년 1월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901년 시작된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를 모체로 1912년 9월 1일에 창립되었으며,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원리로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장로 교단이자 한국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하여 총회 산하에 161개 노회, 1만 2천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총회는 총회 직영으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총회 세계선교회(GMS)를 통해 101개국 1,412가정 2,5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을 발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로고

본 교단의 로고는 신구약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상징한다. 파란색은 평화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연녹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신구약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역사를 3단계로 표현하여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귀결되어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이로부터 확장되어 가는 신약시대 교회의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



구약시대
구약성경
평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신약시대
신약성경
사랑
생명

교단 로고는 특허청의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는 상표입니다.
교단에 소속된 산하 기관이나, 노회, 교회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교단 교회가 우리 교단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입니다.

총회로고 동판 구입 및 로고 다운로드

본 총회 산하 교회가 벽면부착용 총회로고동판을 사용하려면 총회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총회공식로고 시안은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헌금은?

총회는 모든 부서가 각종특별주일을 빈번하게 실시하므로 인한 부작용과 특별주일에배가 헌금 목적성이 강하다는 시선, 총회산하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1년에 1회 지교회가 세례교인헌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례교인헌금은 총회의 운영과 사명 감당을 위해 총회 산하 전체 세례교인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각종 주일실시를 폐지하고 연 1회 총회주일을 실시하기로 가결하여, 제81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제99회 총회에서 각종주일 명칭을 ‘~날’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므로 총회주일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1월 셋째 주일은 세례교인헌금을 시행하는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인헌금은 어디에 쓰이나?

세례교인헌금은 총회본부를 비롯한 총신대학교, 지방신학 대학 및 신학원, 총회세계선교회(GMS) 등 산하 기관과 상비부서 그리고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등 기관사역에 지원됩니다. 또한 연합사업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일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되며, 은퇴 교역자의 노후 대책을 위한 복지사역과 각 지역 및 해외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에 사용됩니다.

총회세례교인헌금은 민족의 최대 과제인 북한 내 민족 지원사업과 통일운동 및 통일기금, 그리고 미자립교회 지원사업과 교회개혁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총회교육개발원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노회와 총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총회본부의 모든 사역은 노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협력사역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기 총회세례교인 헌금 목표액은 5,200,000,000원이며, 헌금 목적에 따라 지원과 사업비로만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원내역	금 액
학교 장학금	총신대학교,지방신학대학 및 신학교	500,000,000
세계선교회	세계선교를 위한 지원	200,000,000
교육개발원	공과교재(통합,계절공과 등),다양한 콘텐츠 개발	600,000,000
산하기관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은급재단기금, 총회사회복지재단, 주일학교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청장년먼려회	658,000,000
특별지원	오나빌기독교학교, 전국여교역자회, 한국창조과학전 시관, 수어성경번역사업, 고김정복목사순교관건립, 미자립성경학교 등	145,000,000
상설위원회	총회역사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의회 통일준비위원회(기금 및 정책연구 등) 이단대책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교회세움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255,000,000
상비부(21개처)	경찰서 및 경목지원, 교역자수양회, 목회자특별세미나, 사모세미나, 평신도수련회, 어린이영어캠프등, 목회자 구제 등, 군인교회, 군목단,군선교사회, 군목 후보생, 총회원로군목회, 진중세례식, 군목수련회 등, 농어촌교회지원 및 농어촌교회수련회 등, 다문화, 고령화,저출산,장애인,한센인등, 순교자기념사업 부 위로회 및 등재, 신학연구등, 은퇴목사위로회/원로회 등, 전도지원금,전도훈련비,특수전도사업,정책비/이만교회운동, SCE 중고등부, 청년부수련회 등	1,249,000,000
특별위원회	위기관리대응, 교단교류, 정년연구, 중독상담, 재개발 연구등	120,000,000
노회 지원	세례교인헌금 인센티브	350,000,000
총회관련지원	총회, 목사,장로기도회 등	593,000,000
기금적립	교역자최저생계비, 은퇴여교역자 생계비, 긴급구호 등	280,000,000
연합사업	각 교단 연합사업 등	250,000,000
	합 계	5,200,000,000



노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총회는 노회 산하 교회의 세례교인현금 목표액 95% 이상, 참여교회 80% 이상을 납부한 노회에 대하여는 납부 금액의 20%를 노회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제104회기에는 강동노회, 강원노회, 광주제일노회, 경남노회, 경동노회, 구미노회, 남부산남노회, 대구중노회, 부산노회, 서울동노회, 서전주노회, 시화산노회, 중부산노회, 안동노회, 함동노회(~2020. 12. 10까지 신청) 등의 노회에서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고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받는 노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현금의 시행기준은?

세례교인현금은 각 교회가 1월 셋째 주일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현금하는 날을 정하여 시행하되, 3월 말까지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기준은 세례교인 전원이 대상이며, 서울 지역은 1만원, 도시지역은 7천 원, 농어촌지역은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의 통계기준은 2020년도 총회에 보고된 교세통계 자료입니다. 납부은행 계좌는 국민 076-25-0012-3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협 018-17-004506 총회(예장)입니다. 한편, 개 교회별 세례교인현금 입금확인 및 영수증은 총회 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 간	2021년 1월 17일(셋째주일) ~ 3월 말
기 준	세례교인 1인당 / 지역 적용 (서울 : 10,000원, 도시 : 7,000원, 농어촌 : 5,000원)
적용통계	2020년 총회에 보고된 교세통계표자료(인터넷 보고) 기준
시행대상	산하 지교회 세례교인 100%
납부은행	국민은행 076-25-0012-3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 협 018-17-004506 총회(예장)
영 수 증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담임목사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세례교인현금 납부영수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입 금 시	보내실 때 : 교회이름/담임목사님 성함 (예: 은혜/홍길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또는 세례교인 등으로 입금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분으로 입금하실 경우 총회재무과(02-559-5622, 562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행정사항	*미실시교회 - 총회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한 *100% 납부시 - 서류발급비용 면제, 인터넷 서류발급 가능

노회 시행 협조사항과 제한 조치

각 노회는 노회장·서기 명의로 시행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라며, 미 실시 교회에 대한 지도 및 행정제재 조치(제증명 발급 중지, 노회회원권 제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총회행정 조치사항으로 미 실시 교회에 대하여는 총회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100% 납부한 교회에 대하여는 서류발급비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회 목표금액 50% 미만의 경우 천서를 유보하고, 100% 미 실시하고 있는 교회는 총대교회 총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총회와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및 산하 속회 모든 기관을 위해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총회임원회와 상비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맡은 바 사명을 위해 충성 되게 일하여 칭찬과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쌓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독교 리더십과 믿음의 본으로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복함으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귀한 모범이 되어서 총회와 산하 전국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총회 산하 161개 노회와 1만 2천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여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서 한국교회와 민족의 희망과 대안이 되는 총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 한국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과 삶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공교회성을 지켜나감으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1년 넘게 겪어가면서 무너진 일상과 경건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문을 닫기 일보직전의 수많은 미래자립교회의 처참한 현실과 삶의 기초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형제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저출산과 다음세대의 빠른 감소세, 젊은 세대가 떠나고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교회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가는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기초와 풍토를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현장은 더욱 피폐해지고, 선교사들의 삶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그곳을 재건하고, 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전보다 더욱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원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한가지로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 복음과 실력을 갖춘 선지생도들을 배출해내던 총신대학교가 오랜 혼란과 역경을 딛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속히 정이사체제로 전환되고, 정상화되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총신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이전보다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북으로 나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남북의 지도자들로부터 남북의 다음세대까지 서로의 이념과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는 세대가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이어가는 동포들을 기억하며, 통일의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말씀에 역행하는 역차별적인 법 제정 문제와 더욱 노골화되어가는 이단(사이비)들의 공격들에 올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연합과 힘 있는 대응을 통해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민족복음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절절포 하지 마세요 갈6:7-9 | 총회장 소강석 목사

원스톤 처칠이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엄 있는 차림으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어떤 근사한 축사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힘 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처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처칠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일곱 번의 never give up, 그것이 처칠이 했던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청중은 이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박수는 그의 연설보다 그의 포기를 모르는 인생을 향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팔삭둥이 조산아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더듬이 학생 장애인으로 자랐습니다. 공부는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과목에 낙제점수를 받아 3년이나 유급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는 캠브리지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였지만 그것도 두 차례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도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졸업연설 내용대로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결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칠에게는 잔인한 현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육군 7보병사단 사단장이었던 서정열 장로님은 부대원들에게 ‘절절포 정신’을 역설하셨다고 합니다. 절절포 정신을 영어로 ‘never never give up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사비로 모든 부대원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머플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6:9절에서도 절절포 하지 말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축복의 씨를 뿌리다가 그만 낙심을 해 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보상해 주실 텐데 금세 낙심을 해 버리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어 놓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려고 하는 추수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포기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거나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준 생각입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갈6:7(상)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마귀의 영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에 썩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거짓말쟁이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업신여김’에 해당하는 헬라어 ‘뮈크테리제타이’는 ‘바보 취급당하다’(to be fooled)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6:7절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갈6:7(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되리라고 호소합니다.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마가렛 미첼을 아십니까? 신문사 기자였던 마가렛 미첼은 스물여섯의 나이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퇴직하고 10여 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탈고 합니다. 그러나 3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의 원고를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밀런 출판사 편집장 레이슨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차역까지 달려가서 소설 원고 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레이슨은 마지못해 원고를 받았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슨에게 전보 한 통이 왔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보낸 전보였습니다. “꼭 한번만 읽어 주세





요.” 그러나 레이슨은 여전히 그녀의 소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가렛 미첼이 보낸 두 번째, 세 번째 전보가 와서 레이슨은 어쩔 수 없이 원고를 펼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슨이 원고의 첫 장을 읽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녀의 소설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그녀의 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하루에 5만부가 팔릴 정도의 세기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첼이 도중에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는 배추 다발 세는 데나 쓰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절절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절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몰려 왔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재앙의 쓰나미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의 재앙의 바람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까지 강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서기행 총회장님 때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총회교역자최저생활기금 20억과 전국장로연합회가 기부한 1억5천만원, 장로신문사가 기부한 1천만 원 등 총 21억 6천만 원을 전국의 2160곳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100만원씩 섬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미래자립교회를 잊지 않고 도와준 우리 총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내셔야 합니다.

어찌 개척교회 뿐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실직자, 미취업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연가를 불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반드시 백신이 나올 것이고 반드시 치료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다고 기억하며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다.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후1: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선이고 아멘이고 예스고 오케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뿐입니까? 우리는 낙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역설적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흉년과 기근이 들어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 밖에 없었지만 엘리야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을 때 아낌없이 드렸습





니다.(왕상17:15) 그랬을 때, 사방이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갔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은 단 하루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왕상17:15-16)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버티고 버텨내야합니다. 그렇게 버티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에델바이스는 저 알프스나 히말라야의 혹한의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오묘한 자연의 신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혹한의 시련이 올수록 버텨냅시다. 아니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순결의 에델바이스, 희망의 에델바이스를 피워냅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윗의 고백대로 동녘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의 아침 빛 같고 들판의 새풀이 돌아나는 것처럼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삼하23:4)

오늘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시행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총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편 되는 대로, 아니 힘껏 세례교인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교회도 운영하기 힘든 어려운 때에 어쩌면 세례교인 헌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역설적으로 총회를 향하여 눈물과 감동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헌신을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높이 비상(飛上)하게 하시고 더 높이 웅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총회 역시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세례교인 헌금을 통하여 총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총회 안에 있는 공적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1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역설의 헌신으로 더 비상하시고 더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총회 산하기관 및 주요사업 소개

총회 산하기관 및 주요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중신대학교(총회신학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직영 신학교로서 개혁주의 교리에 따라 학문연구와 영성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교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사당캠퍼스와 양지캠퍼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들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1. (지성)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고도의 기독교 학문 수립을 추구한다.
2. (영성)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경건을 훈련한다.
3. (인성) 칼빈주의 세계관을 실천하여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한다.



총회세계선교회는 총회선교국에서 확대하여 1998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를 조직함으로써 국내 최대 전문 선교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월문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01개국 1,412가정 2,553명의 선교사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심 전략으로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지 개발과 육성, 전략적 선교지 집중화, 팀선교 활성화, 전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신문사

기독신문은 총회 직영 언론사로 1965년 1월 4일 개혁신학의 보수, 교회의 단결, 성도의 교제를 사시로 창간되었습니다. 총회 산하 노회에서 이사를 파송하며, 총회 내 각종 행사와 상비부,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사화하고 있으며, 총회의 공식 언론으로서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건강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신문은 국내 종교신문 중 인지도와 영향력, 구독률 등에서 최고의 신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제96회 총회부터 시작된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제101회 총회에서 설립된 총회산하 기관입니다. 법인이사와 노회 파송 실행이사로 구성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위하여 전국 8개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및 각 노회별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회 내 미래자립교회의 자립을 목적으로 정책 개발 및 노회, 지원교회와 미래자립교회의 네트워크 구성, 목회자의 교육, 학자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및 노회의 자립위원회와 소통하며 각 지역의 형편과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총회은급재단 총회은급재단은 총회 산하 목회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산하 전 교회가 지원하는 기금과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상품으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219명, 연금 276명, 합계 495명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회사회복지재단 총회사회복지재단은 고령화, 양극화, 다양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본 재단은 25개소의 직영운영시설과 20개소의 수탁운영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도움을 구하시는 교회는 총회사회복지재단(02-559-56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교육개발원 제104회기를 기점으로 주일학교 교육과 부흥을 위해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진과 교수 그룹의 전문위원, 목회자 그룹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이며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종 주일학교 공과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신앙교육교재, 멀티미디어 자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12월 「생명의 빛」 공과 이후 현장의 요청에 따라 융합형 공과인 「하나 바이블」이 「교회용」, 「가정용」, 「앱 활용」 등으로 출시되었으며, 2021년 1월 겨울교재는 코로나19 상황에 최적화 된 「웹 공과」가 국내최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회 발행 출판물 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명의로 발행하는 모든 공과와 헌법 등의 기준도서는 물론 <익투스>를 통해 신앙도서를, <예장출판사>를 통해 성경 및 찬송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총회의 융합형 새공과인 하나바이블을 출간하여 교단산하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이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구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가정과 교회 등을 연결하는 멀티형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출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주문을 확장하여 매출신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온라인 시대에 맞는 평신도 훈련과 교사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재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총회 제증명 발급센터 총회 산하 교회들의 제증명 발급 업무는 총회본부 3층 기획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전화(02-559-5617, 5626) 신청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가능서류는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법인설립허가서, 안수증명서, 급여증명서, 연말정산서류 등이며, 직인증명서는 직인 등록 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 총회에서는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기부금명세서와 고유번호증입니다.)

* 본부 3층에 마련